

『대통령 기록전쟁 : 노무현, 대통령기록을 남긴 죄』
전진한, 한티재, 2016

박종연*

기록관리 대중서, 역사서

지금까지 기록관리분야의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난무했고, 철학적·과학적 사고를 요하는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되었거나 시험대비를 위한 수험서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전문가 준비생들은 자신의 지적능력을 원망하며 한 장, 한 장을 힘겹게 읽었고 일반대중에게는 외계어가 난무하는 고리타분한 전문서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기록전쟁』은 기존 기록관리분야 책들과 달리 예비 기록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록관리 대중서’이다.

무엇이 이 책을 ‘기록관리 대중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이 책인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를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대통령의 이야기, 그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벌어졌던 우리사회의 정치적 공방의 이야기는 난생 처음 접하는 기록관리어용으로 포장되어 있지도 않다. 기록관리전문가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아니더라도 지난 수년간 벌어졌던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필자를 통해 아파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은 ‘기록관리 역사서’이다. 지난 16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록관리의 역사를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하여 풀어낸 ‘기록관리 역사서’이다. 어떻게 기록관리법이 탄생되어 혁신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록공동체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필자의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 해준다. 특히 2008년부터 있었던 대통령기록과 관련된 기록관리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기록물유출, 쌀 직불금 문제,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등 지난 수년간 기록공동체가 대통령기록과 관련하여 겪었던 풍랑을 알려주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공공기록관리에 관한 부분도 이 책을 ‘기록관리 역사서’로 볼 수 있게 한다.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과 2015년 추진된 ‘공공기록물법 개정(기록민영화)’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기록공동체의 대응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은 자칫 기억속으로만 남게 될 지난 과거를 기록해준 의미 있는 일이다.

기록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제안

『대통령 기록전쟁』은 지난 사건을 되돌아보고 기록해준 책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필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대통령 기록의 온전한 생산과 다음 세대의 전승, 후임 대통령의 기록 왜곡금지와 기록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운영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과거 대통령기록(또는 공공기록)을 통해 있었던 문제들을 설명하여,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 찾기를 원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안해 주고자 한다.

예컨대 대통령기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언급한 전자기록의 ‘원본개념’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한 법원의 판결 부분, 대통령기록의 생산 문제(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기록의 정의부분 등은 기록공동체가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상기시켜 준 것이다. 또한 8장(대통령기록제도의 개선점)과 9장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독립성은 보장할 수 있을까)에서 말하는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문제점(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시기와 범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종이기록물 관리,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확보)등은 우리나라 기록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필자의 의지와 기록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장 대통령기록제도의 필수조건은 필자의 의지와 기록공동체의 염원이 사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공공기록)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록으로 평판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록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기록을 활용한 기록

많은 책들은 필자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기억으로 만들어진다. 지난 과거를 어렵사리 기억해 내어 기억의 조각을 사건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 표현한다. 간혹 이러한 표현은 누군가의 회고록처럼 사실관계의 확인여부와는 상관없이 드라마틱하게 각색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필자의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기록’이다. 실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활동 과정에서 필자가 경험한 사실과 기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사실만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실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이 불편하다. 특히 정치적으로

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기록공동체도 이 책을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 책은 기록관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기록관리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는 필독서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 기록관리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현재 기록공동체가 해결해야할 기록관리의 제 문제가 이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짧게 스쳐지나간 내용도 있고 심도 있게 다룬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안 등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기록공동체가 미래의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